

退溪와 茶山

—문헌학의 연속성과 차별성

심 경 호 *

目 次

1. 머리말
2. 퇴계의 문헌분석방법과 문헌학
3. 다산의 문헌실증방법
4. '도문학'의 연속과 전변-마무리를 대신하여

1. 머리말

해석을 배제한 가치중립적인 문헌분석은 학문의 第一義的 요건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헌분석 자체도 이미 해석의 시각을 담고 있고, 방법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의리의 학문을 지향한 전통 한학이 늘 문헌의 내재비판을 이용하여 학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구축하여 왔던 사실로부터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문헌을 중심으로 지적 활동을 수행하였던 우리의 전통 학문은 특히 문헌학(philology)의 연구방법을 독자적으로 발달시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축적하여 왔다.

전통시대의 문헌학적 연구방법은 문자학·음운학·훈고학 등의 小學과 학문계보학인 目錄學을 기초학으로 삼아 왔다. 한국지성사에서 이러한 기초학을 '道問學'의 방법으로서 적절하게 구사한 위대한 학자가 퇴계 이황과 다산 정약용이었다고 생각된다.

유교, 특히 주자학의 공부에서 '도문학'과 '존덕성'은 분리될 수 없는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것이지만 실제의 공부에서는 그 둘의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도문학’은 본래는 『論語』에서 말한 ‘博’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博’은 또한 ‘多聞’을 뜻하였다.¹⁾ 『中庸』에서도 博學을 審問·慎思·明辯·篤行의 토대로 삼았다. 그러다가 주자학 이후 ‘도문학’은 ‘格物’의 개념과 연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무렵 문헌정보를 다루는 지식학의 분야에서 그 용어는 치밀한 읽기를 뜻하는 ‘讀書’라는 말과도 관련을 맺게 된 듯하다. 이로써 지식학 분야에서의 ‘도문학’은, 문헌정보를 섭렵하여 그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화하는 ‘博學’과 저작물을 그것이 생기고 수용된 맥락 속에 위치시켜 그 문맥의 의미를 탐구하는 ‘讀書’를 한데 아우르게 되지 않았나 한다.

한국 전통인문학의 위대한 사상가 퇴계 이황의 경우는 ‘존덕성’에 학문의 제일의적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결코 ‘도문학’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곧, 퇴계는 문헌정보의 지식학에서는 小學과 目錄學의 방법을 문헌분석의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 사상사에서 인간학의 새로운 원리(principle)를 제시한 사람인 다산 정약용은 퇴계가 발단을 열었던 문헌분석의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문헌실증주의의 방법을 수립하였다.

퇴계에서부터 다산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지성들은 ‘도문학’의 한 방법으로서 문헌정보의 지식학을 개화시키고 문헌분석의 방법을 착실하게 발전시켜 한국 고전문학의 열개를 마련하였다. 다만 퇴계와 다산의 문헌분석 방법은 시대적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차별성도 지닌다. 본고에서는 퇴계와 다산의 문헌분석 방법에 대하여 窺見을 피로하고자 한다.

2. 퇴계의 문헌분석방법과 문헌학

퇴계는 인간의 의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추구해야 할 삶의 이상을 제시하였고, 인간에게 허용된 내적 자유를 중요시하였으며, 이 자유를 통해

1) 『荀子』, 「修身」편에 ‘多聞曰博’이라고 하였다.

서 자아 및 세계와의 화해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간에게 타율적으로 작용하는 외적 운명과의 불협화[違於時]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의지로써 제어할 수 있는 내적 운명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였다.

그러한 퇴계의 일생 학문은 本原 공부, 다시 말해 ‘존덕성’으로 수렴된다. 그것은 그가 1559년(59세) 10월 24일 奇大升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매우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이전의 유학자들은 배움을 논하면서 반드시 풀린 마음을 거두고 덕성을 기르는 것을 처음 손댈 곳이라 했습니다. 이는 본원에 대한 공부를 이룸으로써, 도를 모으고 학업을 넓히는 기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시작하는 요점을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를 오로지 하여 떠남이 없음[主一無適]과 삼가고 두려워함[戒愼恐懼]일 뿐입니다.²⁾

퇴계는 당시의 문학 및 학문을 場屋文學, 문장가의 문학, ‘吾儒의 學問路脈’으로 준별하고,³⁾ 장옥문장과 문장가의 문학을 비판하였다. 퇴계는 심지어 金宗直에 대하여도 “시문으로 제일의를 삼았을 뿐이고 此學 此道에는 유의하지 않았다”⁴⁾고 말하였으며, 오직 李彦迪만이 흥중으로부터 유출하여 義理가 明正한 글을 남겼다고 논평하였다.⁵⁾

그러나 퇴계는 訓詁之學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다. 훈고를 통하지 않고는 경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2) 김영두 옮김, 「기정자 명언에게 답하는 글」,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소나무, 2003, 30~39쪽.
 3) 『退溪集』 속집 권6, 「與權章仲」; 如此不改, 非唯於吾儒學問路脈甚遠, 亦恐文章家爐錘, 亦不堪當得. 非唯文章家, 下至場屋文字, 亦不可以此手段求之.
 4) 『退溪集』 권21, 「答李剛而 別紙」; 今以佔畢公全集觀之, 惟以詩文爲第一義, 未嘗留意於此學此道.
 5) 『退溪先生言行通錄』 권5, 의론 제4, 「論人物」; 吾東方, 不無道學之士, 而文獻無徵, 其所造深淺, 無從考見. ……; 以可徵者而言之, 則近代晦齋之學甚正, 觀其所著文字, 皆自胸中流出, 理明義正, 渾然天成, 非所造之深, 能如是乎!

더구나 퇴계는 학문을 할 때 사실에서 벗어나 적절치 못한 증거[事外 遼闊不貼之證]를 배격하였다. 그 태도는 記事文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行狀과 碑誌를 公器·公道로 인식한 것은 대표적 예다.⁶⁾ 또한 퇴계는 詩帖 및 서적의 간행과 관련하여 考據覈實을 대단히 중시하였으며, 서평에 전통학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목록학의 방법을 고도로 구사하였다. 퇴계 문하에서 영남 좌파가 문헌학 학풍을 열어 조선의 문헌학적 연구방법을 확립하기에 이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⁷⁾

(1) 음운의 문제를 경전의 釋義에 원용 — 사건을 이용할 줄 알았던 대학자

퇴계는 1553년(명종 8) 4월 53세로 대사성에 취임한 이후 1555년(명종 10) 2월에 귀향하기까지 사이에 구 釋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서석의』를 이루었다.⁸⁾ 그 가운데 『易本義』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내용이 소략하고 퇴계의 案語도 별로 없지만, 『시석의』와 『서석의』의 경우는 구

6) 『퇴계집』 권15, 「答許太輝」; 文章公器, 當取其可者傳之.

『退溪集』 권21, 「與李剛而」; 大抵文章公道, 何可以情面而苟爲之耶?

『退溪集』속집 권3, 「答宋台叟」; 文章公器, 豈可一時緣情遷就, 貽譏後世乎?

7) 柳鐸一, 「退溪의 文獻觀과 文獻學的 學風의 展開—鶴峯系派를 中心으로—」, 『退溪學研究』2집,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8.

李完栽, 「嶺南學派에 있어서 鶴峯先生の 位置」,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先生紀念事業會, 1993.

심경호, 「退溪의 序跋文」, 『한국의 철학』 제25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7, pp.55~72.

_____, 「錦城開刊, 『溪山雜詠』과 庚子本, 『退溪文集』의 간행 경위에 대한 일 고찰」, 『계간서지학보』19, 한국서지학회, 1996.

『국문학연구와 문헌학』, 태학사, 2002.

8) 퇴계의 手寫本 『경서석의』는 임진란의 兵火로 없어졌고, 현전본은 1608년 선조 41, 沒年에 경상감사 崔堉과 퇴계문인 琴應璫이 傳寫本들을 수습하여 그것을 토대로 다음 해(1609년)에 목판 인쇄한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8년 영인 『增補退溪全書』所收 8권 2책 참고, 奎章閣과 誠菴古書博物館에 『삼경석의』가 收藏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성균관대도서관에 『사서석의』가 별책으로 수장되어 있다.

석의를 적극적으로 수합하고 내용을 대조하였다. 즉 『시석의』는 金繼趙 소장의 『釋義并考字音』,李克仁 석의, 孫暲 석의, 李得奎 석의 등을 주 대상으로 삼아 吐釋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서석의』는 李忠綽의 설과 그밖에 여러 석의본들을 참고하였다. 이렇게 구 석의본을 대조하면서 퇴계는 音註나 語句分析和 관련하여 정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⁹⁾

특히 퇴계가 音註를 검토한 것은, 사항 자체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 註音 방식과 韻書 및 字書의 인증 방식이 경학사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될 만하다. 『경서석의』의 음주는 ① 新註와 大全本 : 四書三經大全의 註音を 환기시키고 그 주음에 상당하는 한자음을 한글이나 直音으로 표시한 것 ② 신주나 대전본의 주음과는 별도로 한자음을 추정한 것 ③ 難讀字의 한자음을 한글 혹은 直音으로 표시한 것 ④ 난독자의 음가를 『玉篇』의 반절음으로 표기한 것 ⑤ 『大宋重修廣韻』이나 『禮部韻略』 등의 韻書を 활용하여 음과 훈을 분석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⁰⁾

과문인지는 모르지만, 조선중기에 경전 석의의 音註 문제와 관련하여

9) 1574년(선조 7) 10월에 柳希春은 경서의 諺解 작업을 구상하면서 퇴계 교정의 『朱子大全』·『語類』와 四書五經口訣諺解說을 참고로 하겠다고 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는 퇴계의 설을 근간으로 삼아 여러 설을 절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病沒하였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그 뒤 李珥가 언해 사업을 통괄하였으나 分黨의 외중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다. 뒤에 校正廳에서 유희춘의 계획과는 다른 형태로 언해본이 간행되었다. 유희춘이 참고하려고 하였던 퇴계의 ‘四書五經口訣諺解說’은 오늘날 퇴계의 저작물로 전하는 『經書釋義』, 곧 『四書三經釋義』의 底本이었던 듯하다. 퇴계의 『석의』는 일제강치 궁중에 收藏되어 1585년(선조 18)에 교정청이 諺解本 撰定을 재개하였을 때 다른 諺釋本과 함께 참고하였을 것이다. 한편 퇴계 생전에 中和郡守 安瑋는 퇴계의 『중용』과 『대학』의 석의를 『庸學釋義』라는 제목으로 묶고 퇴계의 저술이 아닌 『語錄釋』에 퇴계의 이름을 冠하여 그 둘을 합쳐해서 퇴계 생전에 목판 간행하였다. 퇴계는 1567년 2월에, 그 석의가 정론이 아니라고 하여 사람들을 시켜 駁判하려고 하였다. 그 해 5월에 기대승이 중화에 가서 판목을 찾아 불살랐다.

(김영두 옮김,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146~7쪽, 「제 이름을 빌어 나도는 책을 없애 주시길」과 188쪽, 「판각본을 마당에서 불태웠습니다」 참조)

10) 심경호, 「退溪 經書釋義의 音注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70호, 진단학회, 1990

_____,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제4장, 「시경론」 참조.

『광운』·『예부운략』 등의 운서나 『옥편』과 같은 자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는 퇴계 이외에 달리 찾아볼 수가 없다.

(2) 『주자대전』·『주자어류』 등 주자학 관련 서적의 精讀 (close reading) — 훈고의 문제를 질문하는 겸허한 탐구자

퇴계는 주자의 학문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의 철학을 구축하기 위해 『주자대전』·『주자어류』·『이락연원록』·『심경부주』를 면밀하게 읽었다. 그 독법은 바로 오늘날 인문학이 추구해야 할 精讀(close reading)의 한 전범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퇴계가 주자 관련 서적의 정독을 강조한 취지는 1566년(퇴계 66세) 11월 6일,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의 별지에 잘 나타나있다.¹¹⁾

李一齋가 일찍이 李剛而 李楨에게 보낸 편지에서 整菴 羅欽順의 잘못을 논했는데, 강이가 그 글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일재의 견해는 과연 정밀하지 못하고 주장에 그릇된 곳이 많으니, 정말로 그대가 보내 준 글에서 지적한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듣건대 이 늙은이가 책은 깊이 읽지 않고 성급히 자신만을 지나치게 믿는다 하니, 그의 잘못에는 반드시 어떠한 연원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寡梅 盧守愼의 오류는 禪學으로 말미암아 길을 잘못 든 데서 온 듯하니, 지난 번에 들은 것이 헛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편지에서 말한 대로 『어류』와 『집주(집주대전을 말함—인용자 주)』 같은 부류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는 곧 이치를 추구하는 번거로움을 싫어하여 곧바로 간략하고 빠른 길로 가려 하는 것이므로, 더욱 크게 우려 할 일입니다.

퇴계는 “이치를 추구하는 번거로움을 싫어하여 곧바로 간략하고 빠른 길로 가려 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였으며, ‘책은 깊이 읽지 않고 성급히 자신만을 지나치게 믿는’ 일을 배격하였다. 66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록 주자 관련서의 범위 안에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博’을 추구하였으며 己見의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고자 하였던 것이다.

11) 김영두 옮김,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165~16쪽.

퇴계가 주자 관련 서적을, 심지어 시문까지 포함하여 정독하였다. 그리고 해독이 되지 않는 어휘나 어구에 대하여 곱씹어 생각하고, 주위 사람에게 풀이를 청하였다. 1568년 12월에 「성학십도」를 선조에게 올리기에 앞서 기대승에게 「서명도」에 관한 어휘 및 자구의 고증을 부탁한 일은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는 1562년에 기대승에게 보낸 별지의 일부를 예로 들고자 한다.

『주자대전속집』의 「答蔡季通書」에서 “천지간의 공간을 다 열고자 한다면, 癰痔螺贏가 손상을 당하게 되는 유감이 없을 수 없다.” 했는데, 웅치과라가 손상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淵源錄』의 「謝顯道遺事」에서 “六文一貫筆로 특별히 써서 가르쳐 주시어, 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육문일관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後人の 「題武夷精舍詩」에서 “성긴 밭에 달빛 비치니 잔나비 울고, 대 책상에 먼지 나니 와작(瓦雀)이 지나가네” 했는데, 출전도 적어놓지 않아서, 와작이 무슨 물건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

주자가 「答鞏仲至書」에서 放翁의 일을 말하기를 “까닭 없이 천진교 위에서 胡孫의 요란시킴을 당했으나, 도리어 大耳三藏觀見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劉珙神道碑」에 ‘藝祖熏籠’이라 한 일도 모르겠습니다.¹²⁾

퇴계의 질문에 대해 기대승은, 이를테면 ‘癰痔螺贏’란 말이 유종원의 「天說」에 나온다고 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별지에 적어 보내기도 하였지만,¹³⁾ 대부분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퇴계에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 주자학의 최고봉인 퇴계 선생의 문집에 대하여, 우리는 퇴계의 정독 태도를 따라서 퇴계가 흡족해 할만한 주해를 가한 주해번역본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12) 김영두 옮김,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95~6쪽.

13) 위에서 예로 들지 않았지만 筋斗나 班伯의 어휘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였다.

(3) 서발문을 통한 사실고증 — 목록학의 참 방법을 서평에서 구현한 학술평론가 창

퇴계가 남긴 서발문은 「天命圖說後敘」를 비롯하여, 40여 편에 달한다.¹⁴⁾ 주지하듯이, 퇴계는 내면의 절실한 요구가 없는데도 남을 위해 서발문을 써준 분이 아니다.

퇴계의 서발문에는 ‘恬退求志’와 ‘敦實恪謹’의 심경을 토로한 것이 많다.¹⁵⁾ 1558년(58세)에 그간의 왕복 편지를 간추려 『自省錄』으로 엮고, 소서(『自省錄小序』)를 붙여서 箴誡의 뜻을 다진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¹⁶⁾ 『醫間先生集』을 抄하고 적은 발문 「抄醫間先生集附白沙陽明抄後復書其末」에서 靜坐의 학이 二程에게서 시작되었으되, 명대의 醫間·白沙·陽明의 靜學이 불교의 영향으로 올바름을 잃었다고 논하였다.¹⁷⁾

그런데 이황은 서발문에서 고증적 사실탐구[考據覈實]를 대단히 중시하였다. 철학사상에 관한 논변문의 성격을 띤 것들은 두말할 것이 없지만,¹⁸⁾ 그 밖의 다른 서발문들에서도 서적의 성격, 善本의 선별 및 교감과 관련하여 세밀한 고증을 하여, 전통학술의 기초학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목록학의 방법을 서평 속에 구현하였다.

「跋金景嚴斃所求七君子贊及箴銘朱文公棲息講道處帖」은 퇴계의 고증적 태도가 잘 드러난 글 가운데 하나다. 이 글은 金斃가 주희의 「七君子贊」

14) 필사본, 『陶山全書』, 퇴계학연구원 영인의 권58~60에 주로 수록되어 있다.

15) 1553년(명종 8) 가을 홍인우(洪仁祐)의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에 서(序)를 지어, 유산록(遊山錄)이 와유(臥遊)의 자료를 제공한다고 논한 것도 그 한 예다. 『퇴계집』 권59, 「洪應吉上舍遊金剛山錄序」, 또 주희의 「齋居感興詩」·「武夷權歌」나 廬山諸作을 후애해서 「書晦菴詩帖後」을 쓴 것도 은일을 구가하려는 뜻에서였다.

16) 『퇴계집』 속집 권8, 「自省錄小序」.

17) 퇴계는 스스로의 靜學이 楊濂의 『伊洛淵源錄』에서 발명된 정좌설과 상통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면적으로 정제되고 엄숙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내면적으로도 통일되고 각성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으며, 靜의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起居行事 속에서 수행할 일을 마음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수양론을 곳곳에서 주장하였다.

18) 「天命圖說後敘」, 「心經後論」, 「白沙詩教傳習錄抄傳因書其後」, 「抄醫間先生集附白沙陽明抄後復書其末」, 「洪應吉上舍遊金剛山錄後」, 「朱子書節要序」, 「啓蒙傳疑序」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과 箴銘類 및 棲息講道 관련의 시문을 초록해 줄 것을 청하였을 때 지은 발문으로, 晦菴·白鹿洞書院·考亭·竹林精舍 등의 위치와 주희의 거주 시기를 논변하였다.¹⁹⁾ 주희의 일생과 학문사적을 시간의 축에 따라 이해하고자 할 때 참고하도록 큰 줄기를 잡아 둔 것이니, 오늘날 한 인물의 일생사적이나 학문사상을 논할 때 기초 작업으로 수행하는 系年化 방법의 원리를 선구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황은 서발문에서 記事의 대상인 詩歌集이나 서적의 善本, 작자와 편찬자의 문제, 서적의 編次와 目次 등에 세심한 주의를 쏟았다. 「書漁父歌後」에서 어부가의 기원과 唱詞의 전승에 대하여 논증한 것이라든가, 「書易範諸圖屏後」에서 黃孝恭의 方位圖圖가 鮑雲龍『天原發微』속의 그림과 같고 포운룡의 그림은 실은 선천원도에서 유래한다고 논한 것은 그 좋은 예들이다.

퇴계는 특히 서평에서 목록학의 전통적 방법을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善讀의 방법까지 제시하였다. 1562년에 『傳道粹言』의 선산 개간본에 대해 쓴 발문(「傳道粹言跋」)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퇴계는 '어록'의 내원에 대하여 폭넓게 논하고서 『전도수언』의 成書, 李楨과 의 校讎 사실과 간행 경위, 『전도수언』의작자 문제를 논한 뒤 독자들에게 대한 바람을 부기 하였다. 전체 글은 5 단락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둘째, 넷째 단락은 퇴계 문헌고증학의 정수를 엿볼 수 있게 한다.²⁰⁾

19) 先生初居建寧府崇安縣五夫里屏山之下潭溪之上, 所謂 憶往潭溪四十年, 好峰無數列窓前者也. 乾道六年庚寅, 先生年四十一, 作晦菴於建陽蘆峯之顛, 雲谷之中, 在崇安西南八十餘里, 往來棲息而已, 非恒處, 皆閩中也. 淳熙六年己亥, 先生年五十, 始以知南康軍赴任, 興建白鹿書院, 三年秩滿而歸, 自是不復至白鹿洞. 蓋南康屬江東, 距閩中絕遠, 當在任日請於朝, 願爲洞主, 而不報, 則固無緣再至矣. 十年癸卯, 先生年五十四, 又作武夷精舍. 韓元吉精舍記, 元晦居于五夫, 在武夷一舍而近, 若其外圍, 暇則遊焉云. 至光宗紹熙二年, 先生年六十二, 歸自漳州, 寓建陽之由橋, 始築室考亭, 自五夫而遷居, 竹林精舍於是作焉. 蓋遷居後九年, 而先生易簀, 享年七十一矣.

20) ②世有粹言之書, 蓋取河南兩夫子之說, 見於語錄者, 約繁而就簡, 潤質而成文者也. 彼其一時諸人, 雖親記所聞, 然記者非一手, 或得其句, 不得其意, 或得其意, 不得其辭. 今一經點化, 而向之質者, 變而文, 駁者歸于粹, 信乎其有裨於傳道, 而便於誦習也. …… ④卽是書之作, 以南軒之序, 則謂出於龜山, 而月湖楊公則疑爲政堂之書.

또 「書啓蒙圖書切要後」는 대단히 짧은 글이지만, 그 短幅을 이용하여 『계몽도서절요』라는 책의 流傳 경위에 주목하였다.²¹⁾ 또한 퇴계는 이 책이 『역학계몽』등의 책에서 발췌하여 엮은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도 이 책이 '初學之指南'일 수 있기에 전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4) 주자학 관련 서적 간행의 세심한 지휘 — 출판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한 선구적 지성

퇴계는 서적의 간행과 관련하여 늘 세심한 주의를 쏟았다. 만년에 퇴계가 스스로의 『성학십도』를 교서관에서 판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대승에게 서한을 내어 小註의 첨입이나 行字數까지 지정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퇴계는 제자들이 지방관아에서 주자 관련 서적을 改版할 때에 刻版 내용과 板式에 걸쳐 자상하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1553년(명종 8) 청주목사 李楨이 蔡模 注 『齋居感興詩註解』를 저본으로 『文公朱先生感興詩』를 간행하면서 주희의 다른 여러 시들과 陳普의 『武夷權歌注』(이른바 劉槩本)를 합본하여 판각하였을 때는, 이듬해(1554)에 판본의 일부 편차를 개정하도록 권하였다.²²⁾ 그 때 퇴계는 別紙에 모두 52수를

自今觀之，若使龜山實有此書，而南軒之類編如是，則何故朱門議論無一字及之耶？況南軒文集，亦無是序，則月湖之言，宜若得之，而今其書首，又有所謂傳道綱領與傳授，而不著其姓名，是又不能無疑者。

- 21) 퇴계는 먼저 『계몽도서절요』는 思齋 金正國의 嗣子 金繼趙가 소장하는 텍스트라는 점을 밝히고, 김정국의 문인 鄭之雲의 말을 인용하여, 이 도설이 趙有亨으로부터 慕齋(金安國)와 思齋에게 전수되었으며, 조유형은 모재와 사재의 從母夫라는 사실을 밝혔다. 서적의 流傳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두고 소장의 계보를 논증한 것이다.
- 22) 심경호, 「朱子『齋居感興詩』와 『武夷權歌』의 조선판본」, 『季刊書誌學報』 제14호 ; 韓國書誌學會, 1994.12., pp.3~36.
- _____, 「朝鮮本の『齋居感興詩』と『武夷權歌』について」, 興膳教授退官記念中國文學論集編集委員會, 『(興膳教授退官記念)中國文學論集』, 日本 : 京都, 2000.3.18. 汲古書院出版, pp.851~864.
- _____, 『국문학연구와 문헌학』, 태학사, 2002.

計行排書하여 그것들을 개각본에 침입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²³⁾

한편 퇴계는 朴希正 소장본 『延平答問錄』 2권을 손수 傳寫·讎校하였고 本錄의 錯簡과 誤字를 釐正하였다. 『延平答問後語』에서 퇴계는 그 사실을 밝힌 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병들고 고단하며 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논어』·『춘추』등과 관련하여 講說한 조목 가운데 行文만 많고 실천에 절실하지 않은 것은 다만 그 조목만을 들고 그 행문은 전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리대전』 등의 책에 보이는 것은 다만 某書에 보인다고 注書에 끼워 적기도 하고 上面에 도드라지게 하였다. 이래서 책이 도무지 온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기에 부끄러울 따름이다.²⁴⁾

퇴계는 선본을 편하고 간행하기 위해 사실고증에 공을 쏟았지만 문헌의 집성 자체에 골몰하지는 않았다. 『연평답문』의 조목 가운데 실천에 절실한 것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행문을 전사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는 서적 간행과 관련하여 제일의적인 것과 제이의적인 것을 분별하였던 진정한 ‘출판인’이었던 것이다.

3. 다산의 문헌실증방법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일부의 선구적 지성들은 도문학의 가치를 존덕성보다도 상대적으로 더욱 중시하였다. 특히 경학의 기초학인 소학과 문헌학의 방법을 학적 체계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한 방법을 철저하게 구사한 인물이 다산 정약용이다.

23) 이 글은 『퇴계집』에 들어 있지 않고, 을묘년의 2차 개정본 『문공주선생감홍시』,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권말에 붙어 있다.

24) 但以支離頓戇，精力不逮，其『論語』·『春秋』等講說之條，文多而不切於行者，或只舉其條，而不傳其文。其在『性理』等書者，只云見某書，或撥入注書，或挑出上面。書殊未爲全書，是爲愧懼耳。

다산은 흔히 실학의 집대성자로 분류되어 기존의 주자학이나 조선 성리학자들의 사상을 극복하였다고 운위되지만, 도문학과 존덕성의 종합을 끊임없이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주자학 혹은 퇴계 이후 조선 성리학의 학적 태도를 계승한 측면이 있다. 다산의 경제치용 방면의 업적이나 문헌실증의 학적 방법은 결코 존덕성을 무시한 몰가치적인 실증주의가 아니었다.

다산은 『도산사숙록』에서 퇴계에 대한 흠모의 념을 발하였는데, 그것은 퇴계가 존덕성의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²⁵⁾ 평소의 愚見이지만, 다산의 사상실천에서도, 비록 퇴계와 같은 형태로는 아니지만, 實心事行의 존덕성 문제가 제일의적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는 다산이 퇴계와 마찬가지로 ‘도문학’의 한 內涵으로서 문헌학(philology)을 착실히 발전시켰으며, 그 점에서 퇴계의 학문방법에 연속되는 측면을 지닌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둘 따름이다.

(1) 소학과 ‘합리론’의 결합 — 전통학술방법의 계승자

전통 학술의 중심을 이루어 온 經學은 경문의 자구 주석을 통해 사상을 개진하는 방법을 널리 사용하여 왔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경전을 해석할 때 바탕이 되는 기초학이 곧 小學이다. 소학은 문헌이 단어→문장→篇章의 구조로 층위를 이루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특히 건륭·가경 연간의 박학(朴學=樸學=考證學)은 그 방법론을 가장 근대적으로 발전시킨 한 유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박학이 극복하고자 하였던 주자학도 실은 소학을 義理 발명의 기초로서 적극 활용하였다. 주희가 경문의 해석에서 반드시 먼저 독음을 주석하고, 圈內註에서 名物·字句의 주석을 행하고 篇章의 문면적 해석을 행한 뒤에 圈外註에서 철학적 의의를 논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 소학의 방법론은 문자학과 음운학에서 출발하여 문체론·양식론과 같은 구조분석으로

25) 『도산사숙록』에 대하여는 김언종, 『『도산사숙록』소고』, 『퇴계학보』 제87·88 특집호, 퇴계연구원, 1995, 12, pp.235~261을 참고.

나아가고, 다시 그것으로 완결되지 않고 관련 문헌의 상호 대조로까지 복잡하게 얽혀나간다.

그런데 전통 한학에서는 소학의 방법만을 전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경문의 해석에 언제나 ‘人情’이나 ‘성인의 이상’에 조회하는 ‘합리’의 방법을 도입하였다. 합리의 방법이란 송의 歐陽脩가 경학론에서 ‘인정’과의 합치 여부를 논리준거로 사용하였던 데서 기원한다. 인정과의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것은 확증에 의한 귀납논증이 아니므로 독자에게 공감을 강요하는 假設法을 많이 사용하였다.

정약용도 ‘합리’론과 본문교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을 구사하였다. 정약용은 閻若璩 『古文尙書疏證』을 받아들여 鄭玄 註의 書序 24편이 진고문임을 논한 위에, 梅賾에 의해 破碎되기 이전의 고문상서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의 방법을 ‘存古’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이 ‘존고’를 통하여 ‘聖經의 原義’를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는 『상서』를 상고 시대 제왕의 정벌과 치정, 치민, 왕위계승, 치제 등등과 관련된 역사서로 파악하여, 과거사를 당대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관련 자료의 校合과 변증, 입론에서 문헌실증적인 태도를 견지하되, 역시 ‘인정’과의 합치라는 선형적 전제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²⁶⁾

26) 『논어고금주』의 한 예를 들기로 한다. 『논어』, 「秦伯」편에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유가의 愚民化 정책원리를 드러낸 말이라고 종종 인용된다. 그 근거는 후한 때 鄭玄이 ‘民’은 ‘冥’의 뜻이고, ‘由’는 따른다는 뜻이라고 분석한 데서 기인한다. 정현은, 인민을 올바른 도리로 가르치면 그들이 반드시 따르지만, 만일 그 ‘本來’를 알게 되면 인민이 혹 가벼이 여겨 실행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인민들에게 정책 입안의 이유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후한의 張憑은 위정자가 德으로 정치를 하면 인민은 각기 제자리를 얻어 그 은혜의 발원자를 의식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나날을 보낸다고 하였다. 魏의 何晏은 ‘由’를 ‘用’이라 보고, “사용하게는 할 수 있어도 알 수 있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백성이 일상 사용하지만 알 수는 없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梁의 皇侃은 하안의 설을 부연하여, 백성이 天道를 사용하여 생활하지만 그 깊은 뜻을 알 수는 없다고 풀이하였다. 남송의 朱熹는 황간의 주석을 계승하여, 인민들은 당연의 이치를 따르도록 시킬 수는 있어도 그 소이연을 일일히 알게 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우민화 정책이 아니라고 본 점에서는 장빙·황간과 같다. 다산

전통 학술에서 소학과 '합리론'의 결합은 역기능과 순기능의 두 측면을 동시에 지녔다. 검증되지 않은 전제를 문헌 이해에 적용하여 경전의 뜻을 왜곡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문헌학적 방법이 실증 자체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하였다. 소학과 '합리'의 결합은 소학의 변태한 논리에 빠져들거나 혹은 '합리'의 자의적 해석에 편향하지 않도록 논리적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2) 참조준거의 확대와 孤證臆見의 배격 — 문헌실증의 원리를 제시한 근대적 지성

박학(고증학)은 하나의 증거는 입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귀납 분석의 원칙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고증학이 수용되기 이전에도 전통 학문은 訓詁나 義理 발명에서 기왕의 傳注들을 상호 대조하고 관련 문헌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바로 孤證에 의한 입론을 배격하는 태도를 체득한 결과였다. 이 점은 퇴계에서도 이미 나타난 학적 태도였다. 그리고 18세기 말 이후 일부 지성인들은 舊註를 輯錄하고 연관 정보를 補說로서 가능한 한 많이 채록하여 훈고·해석의 설득력을 강화하려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산의 학술방법이 그 정점에 놓여 있다.²⁷⁾

은 성인의 마음이란 지극히 공정하여 사심이 없으므로 우민화 정책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道體가 지극하기 때문에 모두다 알 수는 없다는 뜻이지 고의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다산은 종전의 주석들을 대조하는 문헌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성인의 이상을 상정하여 두고 그것에 비추어 보는 합리의 설도 함께 활용하였다.

- 27) 이러한 학문 방법은 주자학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주자학까지 포함한 전통한학의 큰 맥락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 한학은 큰 흐름만 짚어보면 漢學·宋學·考證學이 시대별로 교체되었지만, 어느 경우나 선행하는 설을 충분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서 새 견해를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唐과 宋의 학자들은 한나라 때의 주석을 소동시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행하였고, 程朱學者는 舊註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의리를 새롭게 발명하고자 하였다. 청대에는 校勘과 訓釋을 통해 注疏를 재검토하였다. 그런데 당나라의 疏家は 舊註를 검토하여 正義를 제시하되, 정의에서 벗어난 이설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설이 제기된 이유를 상세히

18세기 중엽에 청초의 주희 매도자인 毛奇齡의 경학설이 소개되자, 조선조의 지식인들은 그 경학연구 방법의 근본지향을 매도하였으나, 다산은 내재비판을 통하여 그 설을 취사하였다. 朴趾源이 논하였듯이, 당시 청초가 주자학을 聖學으로 내걸어 학술사상을 통제하던 상황이었기에, 모기령 이후 발달한 고증학이 주자학을 비판한 것은 곧 청초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의미를 지녔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면서도 대부분의 진보적 지성들은 주자학 비판의 논리 구조 속에 담긴 瑣末主義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다산은 한학과 송학을 두루 참고로 하는 과정에서 모기령의 경학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되, 명물훈고의 번쇄한 학문을 배격하고 의리학을 경세학의 방향으로 강화시켰다.²⁸⁾

다산은 다양한 주석을 정리하되, 注家の 계보를 따져서 계열화함으로써 독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주가를 취사선택하도록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 경전에 대한 학설이 어지럽게 뒤섞여져 그 기강이 없으니, 만일 정밀하게 선택하고 두루 채집하여 올바른 기준 쪽으로 모이게 하고 올바른 기준에 맞게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경전의 도리가 아마도 사라질 것이다. …… 글 읽는 선비가 책을 펴보면 어떤 학설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고, 어떤 해석은 어떤 책에서 밝은지를 알게 하는 것은 물론, 취하고 버리고 좇고 좇지 않는 결정은 배우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것이다.²⁹⁾

심리분석하였다. 이것을 두고 ‘소는 주를 깨어버리지 않는다[疏不破註]’라고 한다. 일견 번쇄한 듯하지만, 선행하는 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성실한 학문자세를 엿볼 수 있다. 朱熹는 舊註를 비판하고 新註를 제시하였지만, 실은 그는 구주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설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반드시 註家の 이름을 밝혔다. 『사서집주』의 序說은 아예 기존의 문장과 선편의 어록을 따와서 集錄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출전을 밝혔다.

- 28) 심경호, 「정약용의 시경론과 청초 학술 : 특히 毛奇齡 설의 비판 및 극복과 관련하여」, 『다산학』 3, 다산학술문화재단, 2002.6, pp.196~229.
- 29) 『여유당전서』 제1집 文 권8, 「十三經策」; 今經典之說, 紛綸錯綜, 散無紀綱. 苟非精選博採, 會其極而歸其極, 則經之道, 幾乎熄矣. …… 使讀書之士, 開卷瞭然, 知某說之起於何人, 某義之助於何書, 而其取舍從違之權, 聽學者自澤.

다산은, 경전의 해석에 관한 한 권위적인 ‘達詁’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주·구주의 차이, 고문가·금문가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만 善讀者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다산의 문헌학이 ‘패러프레이즈’의 수준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이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정약용은 자신의 설을 주장하기 위해 기존의 학설들을 ‘충분히’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경전 연구에서, 청초의 주자비판자 毛奇齡의 설이나 일본의 古學派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및 타자이준(太宰純)의 설까지 참고하였다.³⁰⁾ 참고할 수 있는 모든 설을 그 근본심리에 이르기까지 내재 분석하여 시비를 가린 태도는, 함부로 자기 견해를 내세우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자기검열·자기한정을 극복하려는 지성의 고투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³¹⁾

30) 일례로 『논어고금주』에서 「爲政」편의 「攻乎異端」 章을 논한 입론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치밀하다. 다산은 우선 「攻」자에 대하여 주희의 『논어집주』를 따라, 북송의 范祖禹의 「專攻」설을 정설로 삼되, 補論에서 “이단이란 百家衆技를 가리키지, 楊·墨·佛·老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설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오규 소라이와 타자이준의 설을 수용하고, 『논어집주』의 설을 배격한 것이다. 정약용은 「인증」 부분에서 타자이준의 『論語古訓外傳』에 실린 「공자가어」의 예를 재인용하였다. 다음으로 정약용은 邢昺 疏가 이단을 제자백가 서적으로 본 설이 잘못임을 변박하였다. 이것은 타자이준이 형병 소와 皇侃 설을 부분 인정한 것과 달리, 제자백가가 공자 시대에는 문호를 세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완전 부정한 것이다. 정약용은 『논어』 어구에서 「也已」 語法の 수사적 측면과 공자의 관련 언술을 입론의 근거로 삼았다. ‘해로울 따름이다’란 어투는 엄하게 금단하는 뜻이 아니므로 여기서 말한 이단은 흔히 말하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뒤에 다산은 陸九淵의 말을 인용하여 이단이 곧 多端의 뜻이라고 강조하였다. 육구연은 주희의 격물치지론이 ‘하나의 단서’인 요순의 도를 깨닫지 못한 채 외부 대상을 인식하려고 변채한 작업을 행한다고 비판하였다. 다산이 그의 말을 인용한 것도 그 관점에 동조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산은 攻을 攻擊이라고 주장할 반론을 예상하여, 「考工記」의 용례를 들어 攻이 專攻의 뜻이라고 하였다. 또한 명의 袁黃의 설을 『논어고훈외전』에서 재인용하여, 이단이 양·목·불·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리고 정약용은 다시 漢·풀 유가들이 「異端」이란 말을 사용한 예들을 들어, 그 시대에는 이단이 양·목·노·불을 가리키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리고 「考異」 부분에서 攻을 공격의 뜻이라고 논한 毛奇齡의 설을 일설로 갖추어 두었다.

31) 다산의 경학론 가운데서 특히 『논어고금주』에 인용된 중국 및 일본 학자들의 주석

(3) 체례연구법의 활용과 저술 체계의 중시 — 근대적 저술가

다산은 문헌에서 체계를 매우 존중하였다. 연구 대상의 문헌이 지닌 체계를 중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술의 체계도 중시하였다. 또한 학문연구 활동의 전체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문헌연구의 방법’에 관하여 논하기 때문에 후자, 즉 학문활동의 전체 체계의 문제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산은 연구 대상으로서의 텍스트의 체계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산은 관련 자료의 校合, 변증, 입론에서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을 뿐 아니라, 텍스트의 義例 곧 저술체재를 살핌으로써 텍스트의 原義를 논증하고자 하였다. 書序의 完缺과 眞僞를 분별하고 원의를 추정할 때 體例研究法을 활용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테면 다산은 ‘命’의 부류에 대해서는 ‘군주가 관작을 내리면서 명하는 내용’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였다.

다산은 연구 대상인 경전 본문의 체계를 밝혀내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저술에서도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다산은 「小學珠串序」에서 우화를 예로 들어, 九經·九流·百家의 名物과 數目を 옥구슬에 비유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꿰는 체계가 없으면 지식이 무용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傳注는 수량이 많으며, 때로는 같은 서적에 대하여 논란이 분분한 것도 많다. 따라서 舊注를 이용하려면 하나의 견해에 갇히는 것을 피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앞서 살펴 본 바 있다.

다산이 저술의 체계를 중시하였다는 사실은 모기령의 『古文尙書冤詞』를 비판하기 위해 『梅氏書平』과 『閻氏古文尙書疏證鈔』를 저술한 동기에 잘 나타나 있다.³²⁾ 다산은 1827년에 閻若璩의 『古文尙書疏證』을 빌어보

에 대하여는 김연중, 『丁茶山論語古今注原義總括考徵』, 臺灣:學海出版社, 1987.6을 참고.

32) 『與猶堂全書』 권22, 「梅氏尙書平序」; 蓋自孔安國以降, 說古文者多, 而梅氏之後, 先晉典籍, 一彗以除, 今之行于世者, 無一非梅氏之羽翼. 若所謂毛氏冤詞, 雄辯博證, 千夫斂舌. 臣鏞乃能溯考源本, 歷舉符契. 援古籍者, 指其本旨, 而姦僞自綻. 據前史

고 『매씨서평』을 없애도 좋겠다고 하면서도, 요약거의 저술이 “義例를 갖추지 못하고 眞古文과 僞古文을 뒤섞었으며 上下를 착간한 탓”에 모기령이 여전히 舞弄하였다고 한탄하고, 『염씨고문상서소증초』를 작성하였다. 다산은 또한 『상서고훈』에서 考異(字句異同의 검토), 考誤(趣旨異同의 검토), 考證(증거인용), 考訂(취지 정정), 考辨(쟁점 고찰), 論曰·訂曰[既說 辨駁], 衍義(新立論)와 같은 표출어를 사용하여, 訓詁와 본지의 재해석을 시도했다.

4. ‘도문학’의 연속과 전변—마무리를 대신하여

퇴계와 다산의 문헌분석 방법에는 공통성이나 연속성과 함께 차별성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들테면 퇴계는 『자성록』을 엮은 뒤 쓴 소서(「自省錄小序」)에서,³³⁾ 서한을 기록해서 책으로 엮는 일에서도 존덕성의 실천을 중요시해서 ‘著書不必多’의 기본 태도를 드러내었다.

옛날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몸소 실천함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였다. 지금 친구들과 더불어 강구하여 편지를 주고받은 것들은, 그 발설한 것이 부득이하여 그렇게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할 지경이다. 하물며 이미 말한 뒤에 저쪽은 잊지 않았는데 이쪽은 잊어버린 것도 있고, 양쪽 다 잊어버린 것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비단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거의 기탄 하는 바가 없는 상태로 되고 만 것이니, 너무나도 두렵지 않을 수 없다. 간간이 옛 글 상자를 찾아 손수 베껴두는데, 원래의 초고가 있는 것은 책상머리에 두고 때때로 열람하여 거듭 거듭 그때마다 반성해서 게을리 하지 않겠다. 원래의 초고가 없어 기록할

者, 明其實證, 而邪遁莫售. 摘梅氏之隱情, 如張湯訊囚, 斷毛氏之游辭, 如子路折獄. 綜理公平, 俱造其極. 僞邪既黜, 誠正自著……豈不快哉.

33) 『자성록』에 대하여는 權五鳳, 「退溪의 日錄과 日記의 比較 新探」, 『退溪學研究』 8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4를 참조.

수 없는 것들도 절로 그 가운데 들어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서한을 많이 저록하여 책을 이룬다고 하여도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³⁴⁾

또한 퇴계의 독서 범위는 경전과 주자학 관련 서적에 제한되었다. 특히 『경전석의』에서 퇴계는 중국의 자서나 운서를 참고로 하면서 주희 및 大全本의 注冊을 조선한자음으로 고쳐 읽는데 주력하였지, 경문 자체의 음을 고찰하여 그 구조나 역사적 성립의 과정을 논하지는 않았다. 또 퇴계는 構文과 語辭의 문법적 특징에 주목하여 언해에 응용하였는데, 이 경우 주희의 ‘虛字不釋’ 원칙에 충실한 반면, 古漢語語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또한 퇴계는 경문 해석에서 주희의 설을 준봉하는 반면, 주희 설과 대전본 小注의 모순이나 小注 상호간의 모순에 대하여 논술하지는 않았다.

한편 다산이 문헌실증학의 방법을 학문연구에 도입한 것은 조선후기의 지성인들이 인간과 역사(현실)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박학을 중시하였던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李瀼의 『성호새설』에서부터 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이르기까지, 문헌고증을 통하여 천문·역법·역사·지리·문학·음운·종교·풍속·언어·고사 등 갖가지 영역의 사실을 기록하고 변증한 것은, 관념의 구속에서부터 벗어나 ‘자연의 빛’으로 사물과 사실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조선후기 지성들이 ‘박’을 중시한 것은 관념보다 실제 사실, 기성 윤리보다 개체와 사물을 중시하는 인식론의 변화를 반영한다.³⁵⁾

34) 『退溪集』 속집 권8, 「自省錄小序」; 古者, 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今與朋友講究往復, 其言之出, 有不得已者, 已自不勝其愧矣. 況既言之後, 有彼不忘而我忘者, 有彼我俱忘者, 斯不但可恥, 其殆於無忌憚者, 可懼之甚也. 間搜故篋手寫書, 藁之存者, 置之几間, 時閱而屢省於是而不替焉. 其無藁不錄者, 可以在其中矣. 不然, 雖錄諸書, 積成卷帙, 亦何益哉?

35) 박지원은 특히 인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중 있는 에세이들을 남겼다. 그는 사물과 사물의 본질적 차이가 더 이상 잘게 쪼갤 수 없는 지극히 미세한 공간의 차이(결국 시간의 차이)에 의해 성립하며, 그 미세한 차이가 곧 사물의 공간-시간의 ‘일회성’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대하여는 심경호, 『수정정보』

퇴계는 의리를 추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학문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며, 문헌의 시대에 기초적인 학문 연구란 곧 문헌학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즉 퇴계는 경문의 본뜻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訓詁의 학문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훈고학의 방법을 경전의 석의에 도입하였다. 또한 퇴계는 목록 학의 방법을 서평에 응용하였고, 서적의 출판에 깊이 간여하였다. 그러면서도 퇴계의 서평은 사실 기술의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뜻을 밝히고 眞知에로 나아가는 지성의 운동을 담았다. 퇴계는 의리를 탐구하여 그것을 존덕성의 실천에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였기에, 문헌분석의 실증 자체에 제일의적인 가치를 둔 것은 아니었다. 퇴계의 문헌학은 오늘날의 문헌학(philology)에 대하여 자구의 고증 자체를 추구하여야 할지 보다 높은 인간학적 의미를 탐색하여야 할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산의 경우는 학문의 실천적 의미가 진실성과 설득력을 지니려면 기초 학의 토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다산은 가능한 많은 문헌들을 대조하여 정론을 내리는 방법과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퇴계에서 단초를 제시하였던 한국 문헌학의 방법을 계승하고 변형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다산은 문헌 연구를 통해 당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모색하였기에, 역시 유용·무용의 관점을 벗어난 순수 眞偽論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퇴계가 義理之學에 충실하여 자기수양의 길을 걸어나갔다면, 다산은 義理之學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

퇴계와 다산이 문헌분석을 통하여 제출한 결과 가운데는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될 수밖에 없는 예도 있다. 특히 최근 문헌 연구가 非文字 자료를 참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퇴계와 다산의 방법은 문헌실증주의의 미비성과 편향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한문산문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2 수록, 「일회성의 진실과 미학: 연암의 인식론과 미학론」을 참조.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들의 문헌학적 방법은 지성사의 전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 연구방법은 세계를 해석하고 변혁하려는 방법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문헌분석과 문헌실증 속에 이미 ‘방법’을 내포하고 있었다. 퇴계와 다산은 지식정보를 섭렵하여 체계화하는 ‘博學’과 저작물의 문맥적 의미를 탐구하는 ‘讀書’의 방법을 착실하게 발전시켜, 오늘날 한국한학이 발전할 수 있는 매우 비옥한 토양을 마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³⁶⁾

참고문헌

- 李滉, 『陶山全書』,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영인, 퇴계학총서 제Ⅱ부, 1988.
- 李滉, 『退溪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29·30·31, 1989.
- 李滉, 『增補退溪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인, 1985.
- 丁若鏞, 『與猶堂全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281~286, 2002.
- 權五鳳, 「退溪의 日錄과 日記의 比較 新探」, 『退溪學研究』 8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4.
- 김언중, 『『도산사숙록』소고』, 『퇴계학보』 제87·88 특집호, 퇴계연구원, 1995.12., pp.235~261.
- 김언중, 『丁茶山論語古今注原義總括考徵』, 臺灣:學海出版社, 1987.6.
- 김영두 옮김,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소나무, 2003.
- 심경호, 「退溪 經書釋義의 音注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70호, 진단학회, 1990.

36) 전통한학의 한계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심경호, 「문헌고증과 해석, 그리고 현실에의 매개적 참여」, 『中國語文學誌』 제7집 ; 중국어문학회, 2000.6, pp.73~94를 참조.

- 심경호, 「朱子 ‘齋居感興詩’와 ‘武夷權歌’의 조선판본」, 『季刊書誌學報』 제 14호, 韓國書誌學會, 1994.12., pp.3~36.
- 심경호, 「錦城開刊《溪山雜詠》과 庚子本《退溪文集》의 간행 경위에 대한 일 고찰」, 『계간서지학보』19, 한국서지학회, 1996.
- 심경호, 「退溪의 序跋文」, 『한국의 철학』 제25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7, pp.55~72.
- 심경호, 「문헌고증과 해석, 그리고 현실에의 매개적 참여」, 『中國語文學誌』 제7집, 중국어문학회, 2000.6, pp.73~94.
- 沈慶昊, 「朝鮮本の『齋居感興詩』と『武夷權歌』について」, 興膳教授退官記念中國文學論集編集委員會, 『(興膳教授退官記念)中國文學論集』, 日本 :京都, 2000.3.18. 汲古書院出版, pp.851~864.
- 심경호, 「정약용의 시경론과 창조 학술 : 특히 毛奇齡 설의 비판 및 극복과 관련하여」, 『다산학』 3, 다산학술문화재단, 2002.6, pp.196~229.
- 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 심경호, 『(수정증보) 한문산문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2.
- 심경호, 『국문학연구와 문헌학』, 태학사, 2002.
- 柳鐸一, 「退溪의 文獻觀과 文獻學的 學風의 展開—鶴峯系派를 中心으로—」, 『退溪學研究』 2집,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8.
- 李完栽, 「嶺南學派에 있어서 鶴峯先生의 位置」,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先生紀念事業會, 1993.

투고일 2003. 7.2 심사시작일 2003. 7.7 심사완료일 2003. 7.22

Abstract

Toegye and Tasan -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Philology

Sim, Kyung-ho

Value-neutral analysis of literature which eliminates any interpretation might not be the primary reason for scholarly pursuit. Literature analysis implicates interpretative perspectives and methodological elements. Traditional classical studies which was oriented to the interpretation of meanings had deepened scholarly understanding through internal criticism of literature. Literature-oriented intellectual activities accumulated rich interpretations of the human-being and society through independent development of research methods of philology.

Traditional philological research methods are based on phonemics, phonology and commentaries and bibliography which is a genealogy of disciplines.

In Korean literary history Toegye Yi Hwang and Tasan Chong Yagyong are considered two scholars who applied these basic studies to achieve improvement of personality as well as learning.

Toegye more than oth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basic research which means philology in the period of literature in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what he studied. He introduced the method of commentaries to comprehend true meanings of writings, applied bibliographical methods to comment on literature, and was involved in publishing books. His commentaries were not limited to

technical analysis, but extended to reflect his inner thoughts and proceed to sincerity.

Since he pursued meanings to promote moral character, his primary focus was not to prove literary analysis; rather his philology questions whether contemporary philology should pursue proof of words and phrases or higher humanistic meanings.

Tasan was well aware of the need for building solid foundations to reflect truth and persuasiveness practical meanings of learning. He suggested the methods and system through which as many books as possible should be examined to draw any authoritative conclusion. His approach was inherited and modified from Korean philological methods originated from Toegye. Tasan tried to present solutions to contemporary problems through bibliographical studies; therefore his approach did not necessarily pursue genuine truth or falsehood, which was out of perspectives on utility and uselessness.



Yi Hwang, Chong Yagyong, Philology, Commentary,
Bibliography

退溪와 茶山

- 문헌학의 연속성과 차별성

심 경 호

해석을 배제한 가치 중립적인 문헌분석은 학문의 第一義的 요건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헌분석 자체도 이미 해석의 시각을 담고 있고, 방법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의리의 학문을 지향한 전통 한학이 늘 문헌의 내재비판을 이용하여 학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구축하여 왔던 사실로부터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문헌을 중심으로 지적 활동을 수행하였던 우리의 전통 학문은 특히 문헌학(philology)의 연구방법을 독자적으로 발달시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축적하여 왔다.

전통시대의 문헌학적 연구방법은 문자학·음운학·훈고학 등의 小學과 학문계보학인 目錄學을 기초학으로 삼아 왔다. 한국지성사에서 이러한 기초학을 '道問學(학문에 의하여 인격의 완성으로 나감)'의 방법으로서 적절하게 구사한 위대한 학자가 퇴계 이황과 다산 정약용이었다고 생각된다.

퇴계는 의리를 추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학문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며, 문헌의 시대에 기초적인 학문 연구란 곧 문헌학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즉 퇴계는 경문의 본뜻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訓詁의 학문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훈고학의 방법을 경전 어구의 해석에 도입하였다. 또한 퇴계는 목록학의 방법을 서평에 응용하였고, 서적의 출판에 깊이 간여하였다. 그러면서도 퇴계의 서평은 사실 기술의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뜻을 밝히고 眞知에로 나아가는 지성의 운동을 담았다. 퇴계는 의

리를 탐구하여 그것을 德性 수양에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였기에, 문헌분석의 실증 자체에 제일의적인 가치를 둔 것은 아니었다. 퇴계의 문헌학은 오늘날의 문헌학에 대하여 자구의 고증 자체를 추구하여야 할지 보다 높은 인간학적 의미를 탐색하여야 할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산의 경우는 학문의 실천적 의미가 진실성과 설득력을 지니려면 기초학의 토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다산은 가능한 많은 문헌들을 대조하여 정론을 내리는 방법과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퇴계에서 단초를 제시하였던 한국 문헌학의 방법을 계승하고 변형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다산은 문헌 연구를 통해 當代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모색하였기에, 역시 유용·무용의 관점을 벗어난 순수 眞僞論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주제어

이황, 정약용, 문헌학, 훈고학, 목록학, 진위론